

묘쇼지 절(妙昌寺)

묘쇼지 절은 1300년대 후반부터 마쓰다이라고를 다스렸던 마쓰다이라 가문과 인연이 깊은 조동종의 작은 절입니다. 오타키 계곡에 있는 이 절은, 이끼투성이의 버팀돌을 댄 계단식 논 위에 서 있습니다. 계곡 입구의 주차장에서 강을 따라 나있는 언덕길을 걸어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건물은 1854년에 지어진 본당과 계곡에 접한 조금 오래된 문, 그리고 종루가 있습니다. 묘쇼지 절에는 주지스님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본당은 평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은 1350년대에 순회 중이던 선승이 창설했으며, 처음에는 고독한 정신 수행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후 마쓰다이라 가문의 시조인 마쓰다이라 지카우지(1394년 사망 추정)가 이 절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절을 확장시켜, 처음으로 상설 불당을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로 묘쇼지 절은 마쓰다이라 가문의 비호를 받아왔습니다.

절의 보물 중에는 마쓰다이라 모토야스(1543~1616),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름을 사용해 막부를 연 무장의 명령이 적힌 목찰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1557년부터 1563년의 동란기에 내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묘쇼지 절 경내에서 무력행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묘쇼지 절은 인근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문 안으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